로컬플러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 IP활용 지원 사업 선정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동익)이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시행하는 '2016년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활용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출원 전 발명인터뷰(발명심의제도)를 통해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산업계 활용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창출해 사업화하도록 컨설팅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산대학교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부터 총사업비 4,8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전담특허사무소와 IP마케팅전문기관과 공동으로 Lab. 투어 및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상습 절도범 잇단 검거 도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상습적 의류절취범과 차량 절도범을 잇단 검거하는데 도움을 줘 화제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요원 9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2시50분경 남중동 문화연립 주택가 골목에서 남녀 2명이 모자 달린 점퍼를 입고 차량 주변을 배회하며 손잡이 등을 당겨보는 것을 모니터링 중 확인하고, 문이 열려 있던 차량의 현금을 훔쳐 도주하는 것을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도심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읍면동 마을방범용 등 200여대의 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각종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보건소, 비만 자녀 부모 교육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가 초등학생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교육지원청이 제공한 지난해 군산시 초등학생 비만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1만5,861명 중 2,436명(15.4%)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비만 어린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인식하고 올바른 신체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짱짱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은 비만 아동을 둔 부모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부모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더민주 군산 전략공천 놓고 강력 반발

3명 예비후보 "사전 각본 의한 밀실공천" 등 비난 거세

20대 총선 후보등록을 앞두고 군산 국회의원 출마자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군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김윤태 고려대 교수를 전략공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 군산지역 총선 주자 선정을 놓고 전략공천과 함운경 복당 등 지역 정가에 온갖 추측을 낳았으나 중앙당은 김윤태 후보를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명곤, 신영대, 조성원 등 3명의 경선 예비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총선 주자로 김윤태 교수를 낙점한 것은 현재의 예비후보들보다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 대항마로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선을 준비해오던 3명의 더민주당 군산지역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의 선택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영대 후보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더 민주 비대위의 전략공천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천은 치밀한 사전 각본에 의한 밀실공천을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군산시민과 군산지역 더민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3명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민주 비대위는 정당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주는 최근 우리 당의 비윤리적, 비민주적,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원 예비후보는 "더 민주당이 힘들 때 당을 지키고 밤낮으로 지지를 호소했던 예비후보들이 배제된 채 명분과 실리 없는 전략공천이 이뤄진 것은 유감이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7일 더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한 함운경 예비후보 역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 민주당의 이번 전략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며 군산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13 총선 군산지역구 대결구도는 현역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48),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고려대 교수(53), 새누리당 채용묵 법무사(55), 정의당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57), 무소속 함운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53) 등이다. 예비후보들은 2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숙원사업 보고회

군산시는 지난 18일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숙원사업은 한전 보상과는 별도로 시 차원에서 29건, 947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군산변전소에서 군산시 산북동 새만금 변전소까지 6개 읍면동(임피면,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나운3동, 미성동)을 경유하는 총 30.6km 구간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대, 종교문제연구소 민족종교 목록화 사업 선정

천도교·대종교 등 동산·유물 조사 작업 8개월 동안 8000만원 투입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소장 박광수 교수)가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근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선정됐다.

이 연구용역 사업은 천도교, 대종교, 증산교, 원불교 등 근대 민족종교의 동산 유물을 조사하는 작업으로써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까지 민족종교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미술·역사자료·종교 물품 등의 동산유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는 연구책임자인 박광수 소장을 주축으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천도교), 최윤수 삼일원 원장(대종교), 고대진 원불교 교정원 기록관리실장(원불교), 김홍철 원광대 명예교수(증산교), 김범수 원광대 교수(종교미술), 조성환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총괄) 등 총 7명의 연구원이 팀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사업은 민족종교의 중요 유물들을 목록화하고, 사진 및 상세설명을 덧붙여 자료집을 만드는 작업과 근·현대문화재 등록 선정 기준안 및 유물보존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닌 민족종교 유물을 선정해 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계획이며, 문화재 등록으로 민족종교에 대한 편견이 희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해경, 군산~개야도 여객선 사고 승객 전원 구조

군산과 개야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뻘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오전 9시45분께 개야도 남동방 4.9마일(약 9km) 해상에서 군산~개야도를 오가는 여객선 A호(104톤, 선원 4명, 승객 14명 승선)가 수심이 낮은 부분에 배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선장을 통해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함정을 급파하고 민간구조선 동원령을 내렸다. 사고 당시 여객선 선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엔진에 문제가 생겨 승객 일부를 해양경찰 함정으로 옮겨 태워 개야도로 후송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학교 의대 3학년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지난 17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원광의대(학장 박현) 3학년들의 2016학년도 화이트코트 세레모니가 열렸다"고 밝혔다.

"화이트코트 세레모니"란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흰색 가운을 입어보고 의사 가운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예비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하기 위한 행사이다. 의사의 흰색 가운은 의사의 전문성을, 환자에게는 존경심을 주며 오염을 피해야 하는 의사의 직업상 다른 물질로부터 의사의 깨끗함을 의미한다.

이날 열린 화이트코트 세레모니에는 최두영 병원장, 박현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내,외빈들과 의과대학 교수진, 학부모들이 참석해 예비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의학과 3학년들의 장도를 축하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임상의학 실습병원 및 교육과정 소개, 각 과목별 책임교수 소개와 더불어 히포크라테스 선서식도 함께 가졌다.

최두영 병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이 하버드, 예일 대학병원을 제치고 1위 대학병원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가 뒷받침되었음을 역설하며, 예비 의료인들도 그 마음가짐들을 본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현 의과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듣는 것 보다는 보는 것이, 보는 것 보다는 행하는 것이 낫다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상실습에 임해줄 것을 주문"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활용 당부

군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그 동안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산=문정곤 기자